# 북구,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 간소화한다




광주 서구청전경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 區 누리집 주민생활불편신고 채널 오는 31일까지만 운영

##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으로 주민 혼선 최소화 및 편의 증진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와 서구장학재단(이사장 박찬갑)이 2026년도 장학생 131명을 최종 선발하고 총 2억900만원을 지원해 지역 인재의 학업과 성장을 돕는다.

이번 선발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구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성적우수·행복·다자녀·장애인·꿈지원 수기공모·예체능특기생 등 6개 분야에서 일반장학생 126명을 선발했다.

장학금은 총 1억7908만원으로 대학생 91명에게 1억5088만원, 고등학생 30명에게 2490만원, 학교 밖 청소년 5명에게 3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신설한 미래인재 국외연수 분야에서는 고등학생 3명과 학교 밖 청소년 2명 등 5명을 선발해 2992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공동체 의식과 이타심을 바탕으로 주변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내년 1월 6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일원을 방문한다. 호이스콜레 등 교육현장을 비롯해 미래 인공지능(AI) 센터와 공동체 주거공간 등을 찾아 다양한 교육 방식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연수 이후에는 1년간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수에서 얻은 배움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박찬갑 서구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받은 응원을 나눔과 실천으로 이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은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각자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학사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 남구, 11월 7일 백운광장 청춘으로 물든다

## 문화·공연·체험 어우러진 청년 축제 개최

## 청년·시민들 함께 즐기는 소통·화합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 백운광장에서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열린다.

남구는 30일 "청년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면서 지역 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남구 청년 축제가 오는 11월 7일에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청년 축제는 당일 오후 5시부터 대학생 공연팀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사전 공연 뒤에는 개회식 선언과 함께 김병내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가 진행된다. 토크쇼가 끝난 뒤에는 축제의 흥을 돋우는 무대가 연달아 이어진다.

무알코올 음료를 사용한 칵테일 쇼가 30분간 진행되며, 곧바로 광주 지역 청년 거리 공연자인 박현준씨의 무대가 진행된다.

이어 Y2K 베스트 드레서 선정과 신나는 디제잉 및 댄스 공연도 DJ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추억의 감성을 되살리는 Y2K 콘셉트의 디제잉과 댄스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축제장인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서는 오후 5시부터 청년센터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부스를 비롯해 포토 부스와 가위바위보 오락기, 펀치 기계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운영된다.

또 말랑이와 키캡, 비즈, 타로, 펜꾸미기, 추억의 과자 등을 판매하는 벼룩시장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 축제가 청년들에게는 서로의 생각과 문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젊음과 열정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교류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 소통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학생 공연팀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지며, 구청장과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무대 행사 외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와 벼룩시장이 운영돼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홍보부스에서는 청년센터를 비롯한 참여 기관들이 각종 사업과 활동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포토 부스와 오락기 등은 친구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벼룩시장에서는 개성 있는 소품과 수공예품, 추억의 간식 등을 만나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2025년 청년축제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